“대~한민국”…광주 곳곳서 붉은 응원 물결

남아공전…충장동 마을사랑채 ‘북적’
동구 홍콩골목 호프집도 50여명 모여
환호·탄식 교차…경기 끝까지 ‘발동동’
“결과는 아쉽지만 선수들에 박수 보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열리는 25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 마을사랑채에서 시민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결과는 아쉽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25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충장동 마을사랑채. 붉은색 옷과 머리띠를 맞춰 착용한 20여명의 주민들이 태극기와 응원봉을 손에 쥐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를 지켜봤다.

대한민국은 1차 체코전 승리와 2차 멕시코전 패배로 조 2위였던 터라, 마지막 예선 경기인 이날 비기기만 해도 32강 자력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32강 진출을 염원하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경기 시작이 가까워질수록 사랑채의 분위기는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다.

다만, 전반 초반부터 환호와 탄식이 계속 엇갈렸다. 김민재의 걷어내기에는 박수가 터졌고, 이강인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날 때는 “아이고”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골키퍼가 연달아 신들린 선방을 펼칠 때 주민들은 “김승규”를 연호했고,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주장 손흥민이 몸을 푸는 장면이 화면에 잡힐 땐 “나와서 한 골 넣어주라”, “믿는다”는 등 응원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각 월드컵 경기로 평일 오전부터 문을 연 동구 홍콩골목의 한 호프집에는 시민 50여명이 모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태극전사들을 바라봤다.

이들은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으며 경기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를 토론(?)하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32강에 진출하길 염원했다.

그러다 후반 17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마을사랑채와 호프집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을사랑채에서는 “오메 어쩔까, 아직 시간 남았으니 힘내보자”는 격려가 이어졌고, 호프집에서는 손님들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거나 스마트폰으로 체코와 멕시코 경기 상황을 확인하며 초조함을 보이기도 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조규성과 박진섭의 득점 기회가 무산되자 곳곳에서 또다시 탄식이 터져 나왔고, 종료 휘슬로 대한민국의 패배가 확정될 땐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날 패배로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은 안갯속에 갇혔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아직 경우의 수가 남았다”며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왔다는 용형식(45)씨는 “아이들과 함께 이기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현장학습 신청서까지 내고 왔다”며 “골이 나올 듯 말 듯해 답답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대학생 홍영채(21)씨는 “결과는 아쉽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혹시라도 32강에 오른다면 전술적인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찬웅·서형우 기자

“태극전사 파이팅” 유치원생도 힘찬 함성

동구 애플B유치원서 140여명 응원전
앞서 멕시코전도…“좋은 경험 됐을 것”

광주 동구 소재 애플B 유치원의 원생 140여명은 25일 시설 내 강당에 모여 한국 대표팀과 남아공의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색 상의 등을 입은 원생들은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외치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 〈애플B 유치원 제공〉

광주 유치원생들도 25일 고사리같은 손을 흔들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

동구 애플B 유치원의 원생 140여명은 이날 시설 내 강당에 모여 한국 대표팀과 남아공의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단체 관람은 지난 19일 멕시코전에 이은 두 번째였는데, 원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며 응원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축구 경기 규칙과 함께 월드컵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색 상의를 입은 원생들은 유치원에서 준 ‘태극기 두건·띠’를 머리에 쓴 채 모형 축구공이 붙은 응원봉을 흔들며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외쳤다.

만 5-6세 16명으로 구성된 축구부 원생들은 해설자를 도맡아 친구들에게 출전 선수의 스타일과 특징 등을 알려주며 관심도가 덜한 이들도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극적인 순간과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하나되는 응원전을 만들어 나갔다.

최봉훈 애플B 유치원 원장은 “승패를 떠나 원생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대한민국의 응원단이 돼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참 예뻤고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원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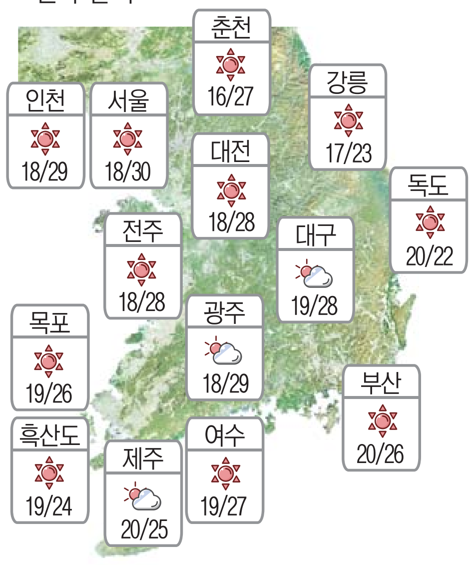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20 해짐 19:51 달뜸 16:51 달짐 02:05

●광주 · 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8/29	장성	구름조금	17/28
목포	맑음	19/26	보성	맑음	17/28
여수	맑음	19/27	함평	구름조금	18/27
나주	구름조금	18/29	순천	맑음	18/28
완도	맑음	19/28	영광	구름조금	18/26
구례	맑음	17/29	진도	구름조금	19/25
강진	맑음	18/29	흑산도	맑음	19/24
해남	맑음	18/28	고흥	맑음	18/28
광양	맑음	18/28	담양	맑음	17/2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북)	0.5-1.5	0.5-1.5
	먼바다(남)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동)	0.5-1.5	0.5-1.5
	먼바다(서)	1.0-2.5	1.0-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1:14	05:07	여수	06:14	00:42	녹동	06:53	01:43
	--:--	16:56		19:28	12:21		20:10	13:16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여행 떠나요
세 차 80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야외건조 좋아요
운 동 50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27일(토)	28일(일)	29일(월)
(18/31) 맑음	(19/31) 맑음	(19/30) 구름조금

30일(화)	7월1일(수)	2일(목)
(19/30) 구름조금	(20/29) 구름조금	(21/27) 구름 비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있는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
진상5일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광양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옥곡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진상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상설시장 ⊙
• 광양매일시장
• 광영상설시장
• 중마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광양시 Gwangyang 광고문의 : 062)650-2099